

“대체 불가능한 배우가 되고 싶다”

‘99억의 여자’ 악역 연기 이지훈

‘개과천선’ 과정 쌓인 것 풀려 속 시원
‘섹시한 쓰레기’라는 시청자 반응 감사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이번 연기로 많이 풀린 것 같아 속 시원하네요.” 28일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라운드 인 터뷰에서 KBS 2TV ‘99억의 여자’ 중역 소감을 밝힌 이지훈(33)의 얼굴엔 활기찬 미소가 가득했다.

“드라마 ‘당신의 하우스헬퍼’ (2018) 이후 7개월 정도를 쉬었어요. 쉬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번 작품으로 쌓여 있던 게 많이 풀린 것 같아 속 시원합니다. 빨리 다음 작품을 하고 싶어요.”

이지훈은 ‘신입사관 구해령’ (2019)의 민우원, ‘사의잔미’ (2018) 흥난파 등 주로 불의에 맞서는 선한 인물을 연기해왔다. ‘99억의 여자’에선 윤희주(오나라 분)의 남편이면서 정서연(조여정)과 내연 관계인 이지훈 역으로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 99억을 두고 정서연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과천선’하는 과정 또한 섬세하게 그려냈다.

“그전에 해왔던 선한 역할과 다른 결을 가진, 결핍이 있고 나쁜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했죠. 감독님께 ‘순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시청자 반응 중에선 “‘쓰레기인데 섹시하다’는 반응이 인상 깊었다”며 “그런 말이 나오기를 원하기도 해서 감사했다. 나쁜 게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역활의 매력도 봐주시는 것 같아 좋았다”라고 미소를 지었다.

서연과 입맞춤, 레온(임태경)과 대치를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은 그는 “키스신이 처음인데 서로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더라. 온몸에 땀이 났다”며 웃었다.

이어 “15화부터 레온과 갈등하는 장면을 컷 없이 찍었는데 정말 빠져서 했던 것 같다. 아내를 건드리는 게 정말 화가 났다”며 촬영 당시 느꼈던 감정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악역 전문 배우’ 정웅인이 악역을 잘할 것 같은 후배로 꼽은 소감을 묻자 “악역을 한다면 누군가 하지 않았던 악역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유아인 선배님 인터뷰를 봤는데 대체 불가능한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연기를 하고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인상 깊게 들었어요. 앞으로 유아이나 메디컬극 등 남자다운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늘 다른 연기, 못할 것 같은 연기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남산의 부장들’ 코미디영화 제치고 설극장가 1위

누적 관객 320만 돌파

영화 ‘남산의 부장들’ (사진)이 설극장가 대전에서 승자가 됐다.

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남산의 부장들’ 누적 관객은 322만6090명이었다.

이 영화는 설 연휴(24~27일) 기간 263만3476명을 동원하며 나흘 내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1979년 제2 권력자라 불리던 중앙정보부장 (이병헌)이 대통령 암살사건을 벌이기 전 40일간 행적을 그린 영화로, 절제된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가 호평을 받았다. 전통적으로 설 연휴에는 코미디 영화가 강세였으나, 이번에는 ‘남산의 부장들’이 그 공식을 깼다.



2위는 권상우 주연 코미디 영화 ‘히트맨’이 차지했다. 같은 기간 125만7339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147만4767명을 기록했다. 이성민 주연 코미디 영화 ‘미스

터 주: 사라진 VIP’는 이 기간 37만8279명을 불러모았다. 누적 관객 48만2845명으로 경쟁작보다 상대적으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연합뉴스

‘리쌍’ 길, 음주운전 자숙기간에 결혼·출산

음주운전 후 3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그룹 리쌍 출신 방송인 길(사진·본명 길성준·43)이 침묵을 깨고 방송에 나타나 결혼과 출산 사실을 공개했다.

전날 방송에서 길은 2017년 음주운전 논란 이후 자숙하는 동안 가정을 이루고 득남까지 했다는 사실을 밝혀 강호동, 이상민, 하하 등 동료 연예인들을 깜짝 놀

라게 했다. 길과 함께 출연한 길의 장모는 “말이 3년간 실종됐다.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한다.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딸 배 속에 손자가 있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길은 3년간 결혼·출산설을 부인하고 갑툭튀에 대해 “타이밍을 놓쳤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했을 때였고 주위의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면서 “지금도 결혼 사실을 아는 분들이 주위에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야 당연 히 혼나야 하고 손가락질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아내와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움이 커서 오직 집 안에서만 감춘 채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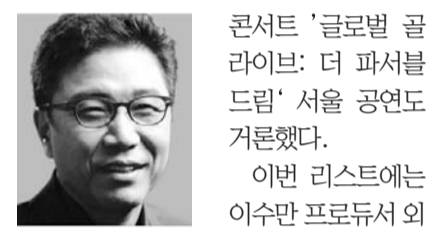
이수만, ‘2020 빌보드 임팩트 리스트’ 선정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사진) 총괄 프로듀서가 미국 빌보드가 글로벌 음악계 경영자 가운데 선정한 ‘2020 빌보드 임팩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프로듀서는 23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2020 빌보드 임팩트 리스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리스트는 ‘빌보드가 글로벌 음악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탁월한 영향력을 지닌 경영진 22명’을 추린 것이다.

빌보드는 “이 프로듀서가 ‘K팝의 새 비전’이라며 프로듀싱한 슈퍼엠(SuperM)은 ‘빌보드 200’에서 데뷔 앨범으로 1위를 한 첫 한국 아티스트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를 총감독으로 9월 개최되는 자선



콘서트 ‘글로벌 골라이트: 더 파서블 드림’ 서울 공연도 거론했다. 이번 리스트에는 이수만 프로듀서 외에 케이티 페리, 얼리사 키스 등의 공연을 기획한 에이이지 프레젠테이션(AEG Presents) 대표 엘리사 오먼드, 소니 뮤직 라틴 대표 알렉스 갈라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내주세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탈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역사저널 그날(재) 55 UHD 스테라(재)	00 99억의 여자(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BBB삼총사의 모험 50 뽀뽀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고씹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우리말 겨우기(재)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4]	00 시사건건	00 무한리탈 샐러드(재)	00 두 번은 없다(재)	00 특집 정재영의 이수만(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시노스톤 프라임 30 강력추천 배틀트립	00 5 MBC 뉴스 25 최중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Q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환상의 타이밍 다시보기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10' 55 더 라이브	00 포레스트	05 특집다큐 포구만리	00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11]	35 UHD 스테라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개그 콘서트(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토크! 토크!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00 EBS 다크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영 유치원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애코와 친구들	14:45 몰락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30 아웅망명 귀여워2(재)
09:00 엄마 까투리	15:10 로보카 폴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비온드 아르헨티나-구름기차 탈까요?>
09:30 원더볼즈	15:25 제로미노 스틸턴의 모험	21:30 한국기행 <그 겨울의 산사 3부 두 스님이 사는 법>
09:15 마사와 곰	15:55 엄마 까투리(재)	21:50 EBS 다크프라임
09:40 아웅망명 귀여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2:45 극한직업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3:35 EBS 초대석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영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9일(음 1월 5일 辛未) ☎ 010-9790-8237

子

36년생 현재 당면한 일부터 먼저 처리함이 맞다. 48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 되느니라. 60년생 시급하다. 72년생 현재의 국면이 매우 중요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84년생 문제점이 보이거든 확실히 해결해야만 후환을 없앤다. 96년생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리라. 행운의 숫자 : 85, 59

丑

37년생 의식의 전환이 용이하다. 49년생 종합적으로 실행해야만 순조로운 양상으로 이끈다. 61년생 구색을 맞추다 보면 무리할 수도 있음을 알라. 73년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85년생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97년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4, 45

寅

38년생 완벽하게 합치기만 한 힘들 것이다. 50년생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62년생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하니 불안해 할 필요도 없고 방심해서도 아니 된다. 74년생 알면서도 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86년생 깔끔하게 보완하라. 98년생 큰 규모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99, 05

卯

39년생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에 신경을 써야겠다. 51년생 가장 적절한 것을 취하라. 63년생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75년생 중요한 사항이 언급 될 것이니 만전을 기해야 하느니라. 87년생 쇠는 뜨거울 때 두드러라. 99년생 마음이 풀리어 쉽게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83, 75

辰

40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에 비유할 만하니 명쾌하게 대처하자. 52년생 중요함을 놓칠 수도 있는 운수이다. 64년생 우려 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76년생 성과를 가져올만한 원인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88년생 시기를 놓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을 것이다. 00년생 공존공영의 기반이 성립되는 도량이다. 행운의 숫자 : 91, 87

巳

41년생 오리무중의 와중에서 가까스로 실마리를 찾게 된다. 53년생 실행하지 못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65년생 부담스럽다면 거부해도 하등에 지장이 없다. 77년생 자신의 눈썹은 보지 못 하는 이치를 알라. 89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01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탐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77, 93

午

42년생 손잡아 기다릴 일이 생길 것이다. 54년생 소신과 주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66년생 발전 동력의 촉매제가 생긴다. 78년생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90년생 증거를 모아서 대처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유익하다. 02년생 자신의 진짜 속내를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1, 23

未

31년생 비약하면 무리가 따른다. 43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평상시에 진행하는 과정에 충실 하라. 55년생 허심탄회한 심경의 토로가 절실하다. 67년생 전환점에 이르렀으니 슬기롭게 임하자. 79년생 어떻게 급변할지 모를 일이니 계속 지켜봐야만 한다. 91년생 전문가나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06, 43

申

32년생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니 잘 활용해 보자. 44년생 바야흐로 기탄없이 실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56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68년생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80년생 허황된 것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음을 알라. 92년생 성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98, 63

酉

33년생 복욕이 늘어나니 즐거움을 더하라. 45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니 심기일전 하자. 57년생 끝까지 무탈할 것인지 잘 살펴 볼 일이다. 69년생 소모적이며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81년생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해답을 얻을 수 있다. 93년생 당면 과제부터 점검하자. 행운의 숫자 : 78, 41

戌

34년생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오해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46년생 강풍에 우산이 뒤집힐까봐서 약간 힘을 쓰는 양태이다. 58년생 소문나지 않게 처리함이 백 번 나은 것이다. 70년생 안정된 마당이 되어야 집중할 수 있다. 82년생 남만을 탓할 일이 아님을 알라. 94년생 정도를 벗어날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88, 90

亥

35년생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니라. 47년생 정량위적인 분석을 요한다. 59년생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진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71년생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백 번 낫다. 83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려마에 빠져들 수도 있느니라. 95년생 입장일단이 있어서 확실한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44, 11